

법무매거진



좌천된 정권 수사 검사들
“월요일에 재판 잡아주세요”

- 지방 좌천, 주중엔 서울行 어려워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으니 이성운 서울고검장 사건은 가급적 월요일에 재판을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법정. 이정섭 부장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수사 중단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 대해 ‘월요일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사팀 의견대로 월요일인 8월 23일로 재판 날짜를 잡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월요일 재판이 늘어나고 있다. 이 고검장을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재판도 매주 월요일에 열리고 있다. 지난 12일 종결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도 월요일에 열렸다.

월요일은 원래 법원이 재판 날짜로 선호하지 않는 요일이다. 판사들이 주말에 재판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독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재판은 월요일에 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 수사를 했던 수사팀 담당수가 그동안 지방으로 좌천돼 주중에 ‘서울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주중에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 소속 검찰청의 일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며 “주말에 재판을 준비해 월요일에 하는 게 낫다.”고 했다.

지난달 6월 25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이런 상황은 더 심해졌다. 이미 인사 발령으로 수사팀원이 있던 검사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진 상황에서 수사팀장들도 지방으로 갔거나 서울에서 더 먼지역으로 발령 났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대구지검으로,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을 맡고 있는 고형곤 지청장은 대구에서 포항으로, ‘울산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지청장은 대구에서 경주로 발령 났다.

법원이 월요일 다음으로 선호하지 않는 금요일에 열리는 재판도 있다. 검사들 입장에선 주말과 인접해 그나마 업무에 지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 재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장관 2심이 금요일에 열린다.

이런 현상은 주로 주 중에 재판을 했던 이른바 ‘적폐 사건’ 재판과 대조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7년 6월부터 4개월간 ‘주 4회 재판’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권을 겨냥한 사건은 재판도 어렵다.”고 했다.

(출처/조선일보)